

여수시, 제3기 낭만포차 운영자 모집

내달 1일 시 도시재생과 신청...1차 서류심사·2차 음식평가 시민·관광객 이전·폐지 부정적...설문 결과 존치 의견 다수

여수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여수의 맛을 알릴 제3기 낭만포차 운영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3기 낭만포차 운영자 모집인원은 18명으로 6월 1일 시 도시재생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낭만포차 운영취자에 따라 사회적 약자 3명, 지역 청년 7명, 인근 지역단체 회원 2명 등 12명은 우선 배정된다.

특히 올해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운영자와 신규 참여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2기 모집 때는 기존 운영자 평가를 통해 교체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인원만큼 새 운영자를 선발했다.

3기 운영자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서류평가, 2차는 음식품평회다. 서류평가에서는 선발인



원 18명의 2배수인 36명을 선정하고, 음식품평회에서 최종 운영자를 가린다.

낭만포차는 2016년 운영 이후 여수만의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해양공원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산물 등을 맛보고 여수바

다도 감상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많은 인파가 몰림에 따라 소음, 쓰레기, 교통문제 등도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이전과 폐지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낭만포차가 현 위치에서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가 의견수렴 채널인 민사형통앱'을 통해 5월 3일부터 22일까지 낭만포차 운영방향을 묻은 결과 시민 1930명 중 46.9%가 '존치' 의견을 냈다. '이전'은 36.2%, '폐지'는 14.3%였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낭만포차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현 위치인 해양공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88.3%나 됐다.

시정운영에 시민의 입장을 대표해 의견을 내는 시민위원들도 5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대다수 위원이 낭만포차 존치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낭만포차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낭만포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은 28일 박현식 완도군수 권한대행과 산후조리원 운영 회사인 ㈜와이케이이동그라미 김영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소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완도전북, 산모 건강식으로 조리원 공급

완도군-YK동그라미 산후조리 식단 업무협약 체결

소비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완도산 전복이 산모 건강식으로 국내의 산후조리원에 공급된다.

완도군은 28일 산후조리원 운영 회사인 ㈜와이케이동그라미와 전북 소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와이케이동그라미(대표 김영광)는 국내 최대 산후조리원 운영 법인회사로 서울·경기지역에 40여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과 중국에 7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양 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산모를 위한 완도산 전복·미역 해조류 이용 식단개발 제공 ▲완도산 전복과 해조류 산후조리원 제공 협조 ▲와이케이가 운영하는 디베이

비 쇼핑물 이용자 대상 홍보 등을 추진기로 했다.

와이케이동그라미 측은 또 완도군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산후조리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완도군과 와이케이동그라미는 동그라미 회원들에게 완도군 관광지 입장권이나 입장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와이케이동그라미 김영광 대표는 "산후 회복에 좋은 완도산 전복과 미역 등을 더욱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완도산 해조류 제품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대덕읍, 대덕천 관광 명소화사업 '시동'

장흥군 대덕읍 지역민과 향우들이 관광과 힐링 명소 대덕천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덕을 시가지로 가로지르는 대덕천은 천관산 도립공원, 탑산사, 정남진전망대, 천관문화공원 등을 경유하는 관광벨트의 중심이다.

최근 대덕읍은 대덕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

해 꿈을 들고 있다. 매일 노인 일자리사업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다. 황칠나무 현수운동을 대대적으로

관광벨트 중심 대덕천, 관광과 힐링의 명소화 추진
황칠나무와 개나리 식재해 명품 가로수길도 조성

제조작업과 환경 정화를 실시하는 한편, 제방 주변에 황칠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어울려진 명품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흥=김홍필 기자

그리고 모든 음민이 참여하는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해, 천관산을 찾는 관광객이면 반드시 찾아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길게는 황칠 명품 가로수길 축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천 대덕읍장은 "허반기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대덕천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더불어 행복한 대덕읍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무안군, 홍보 캠페인 실시

무안군은 최근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삼향읍 남악수변공원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안군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동물을 버리는 동물 유기 방지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줄 착용 등의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홍보했다.

또한,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문화 홍보·정착을 위해 오는 6월 중 반려인이나 비(非)반려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원, 산책로에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길 바라며 앞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유실동물 신고 및 동물등록 방법은 무안군 축산과(☎061-450-403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 실시

진도군이 만성 복합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근 경로당을 방문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약사회 주관으로 진도군 보건소에서 지산면 상보전 경로당을 직접 방문, 혈압·혈당 측정을 비롯 약사가 직접 약 종류별 보관 및 복용방법 등 올바른 복용 지도를 실시했다.

또 치매 예방 건강 체조와 건강 상담, 구충제 파스와 안전 상비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하게 의약품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바른 약물 복용법 교육을 통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로 어르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과 변질된 의약품을 수거하고 경로당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